

'98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



통 일 부

목 차

< 요약 >	1
1. 대내경제동향	13
가. 건설 부문	13
나. 농림수산업 부문	18
다. 광·공업 부문	28
라. 수송·통신 부문	35
마. 과학기술 부문	38
2. 대외경제동향	41
가. 대외무역	41
나. 남북교역	49
다. 나진-선봉지대 개발	53
라. 대외경제협력	55
3. 종합평가	63
부록 : '98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일지	65

< 요약 >

'98년도 경제시책 방향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상선동 강화
 - '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로 규정
- 대내적으로는 농업 및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역량 집중
 - '먹는 문제'의 완전 해결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211고지")
 - 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 건설
 - 강·하천 정비, 도로 건설 등 국토관리사업의 추진
-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의 확대보다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획득에 역점
 - WFP 등 국제기구로부터 보다 많은 식량지원 획득에 주력
 - 경제자원 외교활동 강화

대내경제동향

- 건설부문 : 비생산부문 건설이 격감한 대신 경제건설사업은 전년 보다 크게 증가 (11건→28건)

- 정권창건 50주년 기념일(9.9)을 전후하여 건설성과 선전
 - 총 건설실적의 38% 정도가 9월에 집중
- 비생산적인 정치적 상징물의 건설비중이 감소하고, 건설대상도 석탄·전력·수송 등 중점부문에 치중
 - 정치선전 목적의 상징물 건설 비중이 전년의 81%에서 17.6%로 감소
- 건설규모도 비교적 중·대규모화
 - 북천2호청년발전소, 고원광산, 10월13일청년제련소, 평양집적회로공장, 해주-용진 및 신강령-부포간 철로 광궤화, 신포정제소금공장, 4.25여관 등 건설 완료

□ 농업부문 :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곡물생산량은 전년비 11% 증가

- 장마철인 6~8월중 남한지역과는 달리 집중호우 피해는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
 - 피해규모는 곡물감수 7만여톤 수준으로 평가
 - 북한은 8월 하순부터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호우·우박·냉해 등 극심한 기상피해를 입었다고 수차 보도
- 곡물생산량은 전년비 11% 증가한 389만톤으로 추정

- 북한은 곡물 총생산량을 283.1만톤으로 발표 (농업성 농산국장 차인석 발언, 신화통신 11.24)

* FAO/WFP는 348.1만톤(쌀 134.1만톤, 옥수수 176.5만톤, 밀·보리 37.5만톤)으로 평가 ('98.11.12, Special Report)

< '98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

(단위 : 만톤)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잡곡
388.6	146.1	194.7	11.3	15.4	21.1

□ 광·공업부문 : 구조적 생산침체 현상 여전

○ 전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 건설과 함께 기존 발전소 설비 보수에 주력

- 연중 총 5,0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3만 6,000여 kW에 달하는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

* 발전소 개당 발전능력은 평균 7.3kW에 불과

○ 자금난·자재난과 함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중화학 부문의 생산력은 계속 저하

○ 경공업부문의 위탁가공제품 생산공장들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생산활동이 정체 상태

- 대일본 방직용 섬유제품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비 34.9% 감소한 3,705만달러
- 남한의 위탁가공제품 반입은 전년동기비 4.4% 감소한 2,540만 달러

□ 수송·통신부문 : 육상운수 보강에 주력

○ 새로운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의 정비에 주력

- 기존 국도의 확장 및 직선화 계획에 따라 평양-남포간 새 고속도로(46.3km) 착공(11.18)
- 평양시 9.9절거리 준공(9.10)
- 함경북도 염분진-칠보산 도로 완공(11.10)

○ 철도의 전기화, 광궤화 사업에 중점

- 해주-용진, 신강령-부포간 철도 광궤화사업 완료

○ 50개 시·군에 광섬유통신망 보강·신설공사 완료 추정

□ 과학기술부문 :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주장

-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8.31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

- 정권창건 50주년을 전후하여 신기술 개발성과를 선진하면서 각종 전시회 및 발표·토론회를 개최
-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역할을 강조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 대외무역 동향 : 경제난으로 실적 저조

- 기간중 무역실적은 전년동기비 30% 이상 감소한 약 7억달러 수준으로 잠정 추정 ('98년도 무역총액은 14~15억달러)
 - 수출은 20% 이상 감소한 약 3억달러, 수입은 45% 이상 감소한 약 4억달러 수준
 - * 중국과는 광물성연료의 수출과 곡물·비료의 수입감소로 무역 규모가 38.3% 감소 (2.2억달러)
 - *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임가공사업의 부진으로 무역규모가 30.2% 감소 (1.9억달러)
- 남북교역도 전년동기비 11.0% 감소한 1.4억달러이나 국가별 교역순위는 3위를 유지
 - 반입은 0.6억달러로 37.2% 감소했으나, 반출은 금강산 관광 사업의 영향으로 25.4% 증가한 0.8억달러를 기록

□ 나진·선봉지대 개발 : 개발 및 외자유치 실적 저조

- 「나진·선봉지대 투자상담회」를 개최(9.24~26)하였으나 투자 유치 및 추진 실적은 부진
 - 11개국 참가하여 2건의 투자계약 체결, 4건의 투자합의서 서명
- 지대내 통신망 구축과 함께 운영체제 개선 및 투자지원기구 설립
 - 이동전화 500회선 설치 및 '나진기업학교', '나진정보센터' 개설

□ 대외경제협력 : 주로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

-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및 생필품 지원 획득에 역점
 - '98년중 국제사회는 총 90.7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 (UN 인도조정국)
- 유엔 산하 기구의 북한 현대화사업 지원도 비교적 활발
 -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하에서 추진되어온 에너지 용해 합리화대상(8.25), 안주지구채굴공학연구소 강화대상(8.27), 대외 경제연구소 협조대상(9.2)이 완공·조업
- 다만 정상적 형태의 국가간 경제협력 실적은 극히 부진

종합평가

○ '98년도 하반기 부문별 대내동향을 보면

- 건설부문은 정권창건 50주년을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다소 성과를 거두었으며
- 농업부문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수확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 광·공업부문은 원자재 및 에너지의 상승에 따라 생산침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였음.

○ '98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대외동향은

-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 일본, 홍콩 등 일부 국가 편중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가운데
- 아시아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임가공 관련 품목의 거래 역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 나진·선봉지대 개발도 서방기업의 외면으로 새로운 투자 유치가 부진하였음.

○ 이를 종합해 볼 때 '98년도 하반기중 북한경제는

- 북한당국이 근본적인 경제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식량사정은 전년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 자재난,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상황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98년도에도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 '90년이래 9년째 마이너스 성장

'98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

1. 대내경제동향

가. 건설부문

- 하반기중 건설부문은 극심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상반기보다는 다소 활기를 띠는 양상을 보였음.
 - 정권창건 50주년을 맞아 건설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건설실적의 38% 정도가 9월에 집중
 - 건수면에서의 건설실적은 전년동기의 58건에 크게 못미치는 34건에 불과
 - 내용면에서는 비생산적인 정치적 상징물의 건설비중이 감소한 대신 생산부문의 건설비중이 증가
 - 규모면에서도 공장, 발전소, 광산 등 비교적 중·대규모 사업의 비중이 증가

< 북한의 경제 건설 실적 추이 >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85건	94건	54건	31건	65건	36건	82건	13건	34건	47건

○ 시기별 건설실적을 보면

- 정권창건 50돌 행사가 있는 3/4분기에 건설실적이 집중(20건)됨으로써 정치적 행사에 건설성과가 좌우되는 양상을 나타냈음.

< '95-98년도 분기별 북한의 경제건설 실적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95년	5건	9건	7건	44건	65건
'96년	6건	7건	6건	17건	36건
'97년	8건	16건	13건	45건	82건
'98년	4건	9건	20건	14건	47건

○ 내용면에서의 건설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 「내각결정」(민주조선, 10.17)을 통해 우선적인 해결이 강조된 석탄공업·전력공업·금속공업 및 철도운수 부문의 건설 실적이 전체의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농업 및 경공업 관련부문의 비중은 17.6%를 차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비품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음.

○ 결과적으로 기간중 건설실적은

- 정치적 상징물 건설사업의 비중이 대폭 감소한 대신 경제 부문 건설사업 비중은 증가하는 대조적 특징을 나타냈음.

○ 기간중 북한의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건설성과로는

- UNDP가 지원하여 건설한 현대화된 시설들(에너지 용해 합리화대상, 안주지구 채광공학연구소 강화대상, 대외경제 연구소 현대화시설)이 완공되어 조업에 들어 갔으며
- 통신망의 현대화를 위하여 36개 시·군에 광섬유 통신케이블 공사를 완료하였음.

< 대상별 완공 조업 건수 >

대 상 별		완공·조업 건수	비 중
정치선전 목적의 상징물		6건	17.6%
경제 부문	석탄·전력·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등 중집부문	12건	35.3%
	농업 및 경공업 관련부문	6건	17.6%
	주택 및 도로	6건	17.6%
	기 타	4건	11.8%
	경제부문 합계	28건	82.4%
총 계		34건	100%

- 이밖에 국토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고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북한은 기간중 3억 268만여그루의 식수, 1만 1,560여km의 도로와 3,760여km의 강·하천 정비, 약 3만정보의 토지 정리 실적을 선전 (중방, '98.12.12)

< '98년도 하반기 주요 경제건설 실적 >

월별	건 설 실 적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지에 태양상과 영생탑 건립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모든 도·시·군·리 소재지들과 주요 공장·기업소 들에는 영생탑들이 있음. ○ 평양시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3대장군 현지교시·현지 말씀판 건립(7.18) ○ 평양시 청년건설사단 선교구역연대, 임흥로타리-신미동 2,000 세대 살림집 건설 완공(7.26)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계시, 북천 2호 청년발전소 조업(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10m, 높이 10.5m ○ 함경남도, 고원광산 개발·조업(중앙통신, 8.18) ○ UNDP 지원 에네르기 용해 합리화대상 조업(8.25) ○ UNDP 지원 안주지구 채굴공학연구소 강화대상 조업(8.2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P 협조로 대외경제연구소의 현대화시설 완공·조업(9.2) ○ 10월13일청년제련소, 전기용광로 개선·확장조업(9.3) ○ 철도부, 해주-용진(40.4km)·신강령-부포(20km)간 철길 광케화 공사 완공·개통(9.3) ○ 평양 타조목장(연건평 2만m²) 건설(9.3) ○ 라진화강석광산(수천m² 규모) 완공·조업(9.5) ○ 순천비날론 카바이트직장 3호 전기로 완공·조업(9.7) ○ 평양집적회로공장 건설·조업(9.8) ○ 평양시, 낙랑-서평양(왕복 26km)간 궤도전차 3단계공사 완료·개통(9.9) ○ 평양 9·9절거리 준공(임흥로타리-신미동 사이)(9.10) ○ 양덕군 동양발전소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9.13)

월별	건 설 실 적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남도 개천시, 인민병원 개원(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층의 기본건물, 연건평 12,000m², 외과·내과 등 30여개의 전문치료과, 500개의 침대와 현대적인 치료설비 ○ 36개 시·군에서 빛섬유 통신카벨화(광섬유 통신케이블) 공사 완료(9.28) ○ 4·25여관 준공(건축면적 13만 5천m², 수용능력 2만명)(9.29)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홍수 피해지역에 농촌문화주택 1,200세대 새로 건설 (10.1) ○ 대흥 은정목재가공공장 조업(10.8) ○ 만경대 애국발효퇴비공장 조업(10.8) ○ 함남도, 신포징제소금공장 완공·조업(10.26)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지도 사적비 제막식(10.31)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부남청년발전소 조업(11.3) ○ 함북도, 엄분진-칠보산간 새도로 건설 보도(중앙방송, 11.10) ○ 순천화력발전소 제3호 발전기 시운전과 함께 가동(11.26)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강군, 평강-이천군 사이 도로 확장공사(12.14) ○ 개성시, 초무연탄 탄광 건설 보도(중앙방송, 12.21) ○ 청단군, 180여세대의 농촌 살림집 건설(12.24) ○ 용산청년발전소 준공(12.24) ○ 형제산구역 학산·형산협동농장에 백두산 3대 장군 현지교시·현지말씀판 건립(12.25) ○ 과학원 농업과학연구원, 김일성의 현지교시와 김정일·김정숙의 현지말씀판 건립(12.29)

나. 농림수산업 부문

[농업]

- 북한지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간 6.26~7.27(32일)기간을 살펴보면
 - 장마초기(6.26~30)에는 신의주에만 600mm의 집중호우가 있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10~80mm 정도의 강수량에 그쳤으며
 - 이후(7.1~27)에는 신의주가 462mm의 예외적인 강수량을 보인 것 외에 대부분 지역에서 100~300mm 정도의 비가 내린 것에 그쳤음.

< 장마기간중 북한지역 강수량 >

(단위 : mm)

구분	강수량		구분	강수량		구분	강수량	
		예년			예년			예년
선봉	83.6	159.1	장진	129.2	181.1	평양	229.3	243.5
삼지연	106.0	192.0	신의주	1090.0	233.5	남포	208.7	208.5
청진	125.4	111.3	구성	185.3	335.7	장진	210.2	270.6
중강	56.0	154.9	회천	148.4	355.3	사리원	361.1	202.7
혜산	112.7	133.3	함흥	156.1	193.1	신계	274.1	302.8
강계	158.0	198.3	신포	50.0	191.6	용연	201.1	227.2
풍산	88.4	143.3	안주	281.1	296.9	해주	212.5	263.5
김책	11.0	119.6	양덕	86.5	256.6	개성	265.0	291.0
수봉	262.2	234.6	원산	213.7	261.0	평강	256.7	369.0

- 이러한 강수량은 예년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 북한내 지역 관측소 총 27개소 가운데 22개소에서 강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거나 비슷한 수준임.
 - * 북한은 '95~'97년 사이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사전대비 부족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인식하고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방파제 축조, 적극적인 기상예보 실시 등 나름대로의 장마대비책을 강구하여 왔음

- 특히 8.3~8.13 기간중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대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지역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임.
 - 8.6까지는 개성(8.4, 231mm)지역을 제외하면 비가 오지 않거나 대부분 50~60mm 이하의 비교적 적은 강수량을 기록
 - 8.7 저녁 이후에는 황해·함경도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소나기성 강우가 발생
 - 8.8~11 사이에는 구성·원산(8.8), 개성(8.10), 신포(8.11) 지역에만 100mm 정도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을 뿐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60mm 정도의 강수량에 불과
 - 8.12 이후에는 13일 오후에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이 약한 비구름대의 영향권하에 있었을 뿐, 특이한 기상상황은 별무

- 북한은 8.22 이후 중앙통신과 중앙방송 등을 통해 전지역에 걸쳐 호우·우박·냉해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연이어 보도하였음.

< 보도 요지 >

지 역	기 상 상 황	피 해 규 모
개 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8.10중 2~3일 간격으로 2~3시간씩 230mm~250mm 폭우 ※ 비 60% 감수예상 	<p>< 전 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 7만4,000여정보 침수 ○ 주택 : 4,250여세대 파괴·침수 ○ 공공건물 : 2만5,000여㎡ 파괴
남포,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호우 	
강 원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 통천 등지에서 2~3개월간 1,052mm~1,473mm의 호우 	
황해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천·연안·강령군 등지에 집중호우 	
평안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호우 	<p>< 극심 지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시 : 논 9,000정보 침수 제방·수로 900개소 파괴 ○ 평남도 : 농경지 1만정보 침수, 건물 107동 파손 ○ 강원도 : 농경지 4만정보 침수, 주택 3천여세대 침수 ○ 함경남도 : 농경지 수천정보 침수, 주택 2백세대 파괴 ○ 회령시 : 농경지 280정보 침수 ○ 함경북도 : 경지 2,340여정보 늦서리 피해
평안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상순 정주시·박천군 등지에 전년대비 2~3배의 비 ○ 피현군·용천군 직경 15mm의 우박 ○ 8.23 신의주, 박천, 농천 등에 초속 20m이상의 강풍과 호우 	
함경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 한시간 동안 500mm의 폭우 ○ 동해안지역 평균기온 평년보다 2℃~4℃ 낮음. ○ 고원·금야군에 강풍·호우·해일, 이원군 280mm 호우, 장평군 강풍·호우·10m이상의 파도 	
함경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상순 회령시 268mm, 어랑군·화대군 120mm의 강우량 ○ 무산, 연사군 보름이상 늦서리 	
자 강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초 자성군에 직경 15mm의 우박 	

- 개성 등 7개시·도 전체 농경지(약 80만 정보)의 약 9.3%가 침수
- 동 지역 총 주택수의 0.3%가 침수 또는 파괴

○ 이번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정도를 추정하여 보면

- 가장 극심했던 피해지역이 평야지대인데다 생육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기상이변이 발생했고
- 북한의 정보당 평균 곡물수확량이 2.5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 대략 평년작의 30~40% 수준인 7만여톤 수준의 감수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8.25 중앙방송을 통해 피해 농경지를 10만여정보라고 확대·보도 하였던 바, 이 경우 감수량은 10만여톤으로 예상

- 북한 중앙통신은 9.6 평안남도를 비롯한 서해안지역에 집중호우·강풍·우박이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9.7, 9.9 보도하였음.

< 보도 요지 >

- 9.6 평안남북도·강원도·황해남도·남포시의 일부지역에 강한 비바람과 우박이 내려 피해를 크게 당했으며, 그 중에서도 평안남도의 피해가 혹심하였음.
- 평안남도에서는
 - 순천·평원·숙천·문덕·안주·개천 등에 2~3시간 사이에 170~200mm 이상의 호우가 내려 1만5천정보의 논벼가 침수·유실되었으며, 우박피해로 8천정보의 작물·남새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 이 지역들에서의 논벼 수확은 70~8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평안북도 박천·태천 등에는 직경 20mm 우박이 내려 수천정보의 이삭이 잘리었고, 강원도 이천군·황해남도 봉천군도 우박피해를 입어 벼수확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9.6의 실제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 당일 서해안 지역 관측지점중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없었으나 당시 만주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이 느린 속도로 동진하면서 서해안 지역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 일부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됨.

< 피해지역 실제 강수량 >

(단위: mm)

시 도	관측소	9.5 21시 ~ 9.6 09시	9.6 09시 ~ 9.7 21시	계
평안북도	수 풍	9	-	9
	신의주	41	-	41
	구 성	-	-	-
평안남도	안 주	-	-	-
	양 덕	-	-	-
남 포		-	-	-

* 자료원 : 기상청

* - 표시는 비가 오지 않았음을 의미

○ '98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여 보면

- 수해로 인한 일부지역의 피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기상상태로 인해
-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389만톤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 '98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 >

(단위: 만톤)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잡곡
388.6	146.1	194.7	11.3	15.4	21.1

* FAO/WFP은 '98.11.12자 Special Report에서 '98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348.1만톤(쌀 134.1만톤, 옥수수 176.5만톤, 밀과 보리 37.5만톤)으로 추산

○ 중국 신화통신이 11.24 보도한 북한 농업성 농산국장 차인석의 '금년도 북한 곡물작황' 관련 발언내용에 따르면

- '98년도 북한의 작황은 곡물 총생산량 283.1만톤으로 여전히 흉작으로

- 이는 6~7월의 냉해·폭풍우·우박 등으로 인하여 13.2만ha에 달하는 경작지가 피해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흉작임을 과장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8.11 평양방송을 통해 자강도의 옥수수 작황이 "어느 해 보다도 좋은 수준"이라고 보도

○ 북한은 식량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축산을 장려해 왔으며 최근에는 염소 등 소위 '풀먹는 짐승'의 사육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사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가·협동농장들의 가축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 곡물사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풀먹는 짐승'들의 사육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국가의 축산장려 방침에 따라
 -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함남, 황남, 평남, 평양시 등 각지 37개 시·군들은 각각 1만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 황남도의 경우는 올해들어 3,000여정보의 풀판 조성, 500여 km의 방목지 도로 보수, 800여개소의 물먹이터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민주조선, 7.4)
- 이와 동시에 경공업과학분원에서는 10여종의 염소젖 가공제품을 새로 개발한데 이어 그 가공기술을 북한 전역에 보급하는데 주력함. (민주조선, 7.7)

[임 업]

- 북한은 8.10 '임업노동자절' 36주년을 맞아 중앙방송이 임업부 국장 조성국과 가진 회견을 통해
 - 임업부문 일꾼들이 “당의 임업정책 관철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풀어가면서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 임업노동자절은 '63.8.10 김일성이 양강도 삼지연군 이명수 임산사업소(당시 보천보임산사업소 삼지연작업소)를 현지지도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 ('83.1월)
 - ※ 임업노동자들은 주요 원목 생산지에 설치된 60여개의 임산사업소·갱목생산사업소에 소속되거나, 기타 임산협동조합에서 벌목 활동
- 북한의 목재수급 실정을 보면
 - 수요량은 산업용재를 비롯해서 연료재, 농업 및 자재용 목재

등 연간 약 900만m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 공급은 산림의 황폐화 및 에너지 부족 등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반입되던 180만m³에 달하는 목재·목편의 도입도 최근 거의 중단되고 있어 목재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음.
- 그 결과 북한은 원목생산 부족으로 목재·제지·가구공장들의 정상조업은 물론 탄광·광산 건설 및 각지 건설공사용 자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 임산사업소의 목재생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조립산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북한은 임산사업소의 목재 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업성과를 선전하면서
- 위원 임산사업소가 최근 한달동안 1,000m³의 통나무를 초과 생산했으며(7.14)
 - 천내 임산사업소에서는 최근 한달동안에 통나무를 129.5%, 동발나무를 142.8% 계획보다 초과 생산했다고(8.8) 강조함.
- 또한 북한은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사업을 추진하여
- 사업기간동안에 3억 268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함.

[수산업]

- 북한은 유류난, 어업장비의 노후화, 어업기술의 낙후 등으로 어획고가 '90년대 들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양어사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 양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은 164개소에 총 40정보 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였고,
 - 개성시와 배천군에서는 6정보의 양어장을 건설 및 보수하였음.
- 원양어업과 관련하여 '북-러 어업공동위원회' 제12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합의서가 조인(11.24)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예년처럼 한해동안의 북·러 경제수역들에서의 양측어선들의 작업결과 및 어업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업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을 논의
 - 동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북한의 어획쿼터량이 2만 5,000톤으로 하향조정되었는데, 이는 북·러간 수산업부문의 협력관계가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

< 연도별 북한 어획쿼터량 감소 추이 >

체결연도	'91년이전	'92년	'93년	'94년	'95-'96년	'97년	'98년
쿼터량	20만톤	12만톤	6만톤	4만톤	각 3만톤	조건부 3만톤	2.5만톤

○ 북한의 소금생산 실태를 보면

- '90년대초까지는 서해안 지역의 귀성·남양·금성 등 8개 제염소를 중심으로 천일염만 생산하여 왔으나
- '91년 함경남도 함흥에 정제소금공장 건설을 추진한 이래 공업적 방법에 의한 소금생산에 역점을 두어 왔는데
- 특히 '98년 5월 김정일이 광량만 정제소금공장 시찰시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도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정제소금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라”고 지시한 이래 정제소금공장들이 잇달아 착공됨.

< 소금공장 건설 현황 >

시 기	공 장 명	소 재 지	비 고
'91.7 착공	신흥화학(소금)공장	함남 함흥	
'98.5 완공	광량만정제소금공장	남포시	군 수용
'98.8 착공	함흥정제소금공장	함남 함흥	
'98.10 완공	충성의 신포정제소금공장	함남 신포	

※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유틸설비를 활용하여 연간 1,000톤 내외의 정제소금을 생산 (노동신문, '98.9.19)

○ 그러나 공업적 방법에 의한 정제소금 생산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전력소비도 많기 때문에

- 전력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전력이 소요되는 정제소금공장들의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북한의 소금 수급실태를 보면

- 연간 소금 생산능력이 수요량에 절대적으로 못미치는 50만 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 그나마 생산되는 소금의 대부분이 군수공장, 기업소 등에 공업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 일반주민들은 소금을 거의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 광·공업 부문

[부문별 동향]

(1) 광업 부문

- 북한은 부족한 석탄의 증산을 위하여 새로운 탄광·광산의 개발과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주력하여 왔음.
 - 특히 '91.5 '전국지질탐사부문일꾼대회'를 개최한 이래 각지에서 지질탐사사업을 전개한 결과
 - 동 대회 이후 5년간 20여개의 탄광·광산 개발후보지 및 300여개의 지하자원 매장지를 발견 ('96.5.24 국제방송)
- 북한은 8.18 중앙통신을 통해 중부 동해연선에서는 유색금속 광물생산기지인 고원광산을 새로 개발·조업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 고원광산은 지질 구조상으로 볼 때 금·사금광상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 및 사금 채취를 위주로 한 광산으로 보임.
- 이외에도 석탄의 증산을 통해서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북한은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거나 탄광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왔는 바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평남 북창군 소재)에 인민군을 대거 동원하여 노후시설들을 보수·정비하고 100여만톤의 확보탄량을 조성하였으며
 - 개성시에서는 4개의 초무연탄 탄광을 건설하였음.
 - * 초무연탄은 일반 석탄에 비해 열량이 낮아 공업용으로는 부적절하여 가정용 연료·시멘트 원료·건설용 골재 등으로 사용

(2) 경공업 부문

- 북한은 '내각결정'(민주조선, 10.17)을 통해 인민소비품 생산의 정상화를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데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발기 14주년을 맞이해서도 '8.3인민소비품'의 생산 증가를 강조한 바 있음.
 - 이는 에너지·원자재난으로 인해 경공업공장 가동률이 극히 부진하여 주민들이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 '8.3인민소비품'의 증산을 통해 생필품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켜 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

* '8.3인민소비품'이란 '84.8.3 김정일이 경공업제품진사회를 현지 지도하면서 각지의 공장·기업소내에 가내작업반을 확대 조직하여 폐설물과 부산물을 이용해 생필품을 공급할 것을 지시한 데서 유래

○ 한편 이번 보도에서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생산 단위가 4만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으나

- 북한은 이미 '96년에 생산단위가 4만 8,000여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어, 직장·작업반 중심의 생산단위들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발표한 8·3인민소비품 생산단위 수 >

연도	내 용	출 처
'84	가내작업반·부업반 1만 6,400개	조선중앙년감
'85	가내작업반·부업반 2만 4,400개	'85-'86년 예결산보고서
'92	수만개	조선중앙년감
'96	전국적으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직장·가내작업반·부업반·동가내반 4만 8,000여개	'96. 3 노동신문
'97	4만 3,000여개	중앙방송

(3) 에너지 부문

○ 전력공업의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물질적 요새 점령'을 위한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함. (민주조선, 10.17)

-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중소형발전소와 함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제시
- 중소형발전소 건설과 관련, '98년도 북한이 발표한 중소형 발전소 건설 현황을 보면
 - 연초에는 건설목표를 500여개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해 온 결과
 - 연말까지 북한전역에 걸쳐 완공된 중소형발전소는 총 5,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월별 중소형발전소 건설 실적 >

	1~3월	4월	5~7.20	7.21~8.20	8.21~9.9	9.10~11.20	합 계
건설수 (원평균)	346개 (115개)	311개 (311개)	1,815개 (605개)	798개 (798개)	810개 (810개)	720개 (300개)	4,800개 (436개)
발전능력 (개당평균)	10,000kW (29kW)	6,000kW (19kW)	10,500kW (6kW)	3,500kW (4kW)	2,800kW (3.5kW)	2,200kW (3kW)	35,000kW (7.3kW)

* 위 통계는 북한방송 보도 내용을 종합·추산한 수치를 포함

- 북한의 중소형발전소가 이처럼 연초 목표에 비해 높은 건설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 극심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묘책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강조한데다가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출범 및 정권 창건 50주년 등을 계기로

충성경쟁 차원에서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들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살펴 보면

- 발전소 개당 평균 발전능력은 7kW 내외의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한데
- 이는 동 발전소 건설자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및 기술 수준에 의거 추진되어 전문성·경제성·기술성이 무시 또는 결여 되어 있는 데다가
-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자연부원 적지도 거의 고갈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북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발전소는 그 규모면에서 보았을 때

- 가정용 전력공급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 산업공장 가동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특히 갈수기 발전 불가, 산림 남벌로 인한 북한지방의 저수량 부족 등 구조적 한계요인으로 인해
- 중소형발전소 건설이 북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북한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의 일환으로 안변청년 발전소 2단계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기본적으로 토목자재 및 건설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의 진척은 부진한 실정에 있음.
- * '96.9 제1단계공사를 마치고 조업에 들어간 안변청년발전소의 발전 능력은 약 10만kw 정도로 추정되는데 2단계가 공사가 완공되면 총 발전용량은 80만kw에 이를 것으로 예상 (조선신보, '97.10.14)
- 이밖에도 평양시 강서구역에 200개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황해남도에 1만kw 규모의 조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신문, 10.11~12)
- 앞으로 북한은 자원이 고갈된 수력 이외에 대용연료, 풍력 및 조수력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 북한의 재정사정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해 볼 때 발전설비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편 북한은 발전설비의 보수·정비에도 주력하여
 - 7월 한달동안에만 평양화력의 1호 발전기 축 보수 및 5호기 터빈유 교체, 청진화력발전연합기업소 3호기의 수계 용기 용접 및 석탄기 수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동기 부화축 교체 등을 실시하였는데
 - 특징적인 것은 화력발전소는 설비보수를 중심으로, 수력 발전소는 설비·기술관리에 중점을 둔 것임.

(4) 중화학 부문

- 북한의 화학공업은 '60년대 이후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2·8비닐론연합기업소', '은덕화학공장' 등을 건설하여 화학비료, 카바이드, 가성소다 등 각종 화학제품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음.
- 그러나 '90년대 들어 계속되는 자금난·자재난과 함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생산량은 계속 저하되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2.6 '화학공업절'을 맞아 화학공업 제품의 증산과 화학공업의 활성화를 강조함으로써
 - 비료·농약 등의 생산확대를 통해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 각종 경공업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닐론·염화비닐·가성소다 등을 증산함으로써 주민들의 피복·신발 등 일용품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음.

< 주요 화학공장 및 생산품목 >

공업지구	공장명	주요생산품
함흥공업지구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지구)	함남비료연합기업소 함남제련소 2·8비닐론연합기업소	유안, 요소, 파인산석회 유산 유기화학제품, 비닐론
청진공업지구 (합북)	승리화학공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 은덕화학공장	석유정제 석탄화학제품 스프사, 인조견사 암모니아, 메탄올, 석탄화학제품
신의주공업지구 (평북)	봉화화학공장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청수화학공장	석유정제 스프사, 인조견사, 종이 비료
평양공업지구 (평양, 남포, 평남, 황북)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남포제련종합기업소 청년화학연합기업소	석탄화학제품 무기약품, 인비료 폴리에틸렌, 아닐론, 석유화학제품
해주공업지구 (황남)	해주인비료공장	인비료

라. 수송·통신 부문

- '98년 하반기중 북한은 철도의 전기화, 증광화, 광궤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 광궤화와 함께 궤도전차화 사업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진하고 있으나
 - 철도의 수송능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 특히 9.3 개통한 해주-용진(용진선), 신강령-부포(부포선)간 철로는 기존의 협궤철도를 광궤화한 것으로
 - '80년대말 착수하여 '91. 4 중순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자재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상태에 있다가
 - '98. 6 하순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정권 창건 5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맞추어 서둘러 완공하였음.

- 이밖에도 북한은 평양시 궤도전차 3단계공사를 완료(9.9)하고, 청진시 궤도전차화 공사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는데
 - 이번에 개통된 평양시 궤도전차 구간은 낙랑에서 서평양간 왕복 26km로서 중간에 30개의 정류소가 설치됐으며
 - '91. 4 착공된 청진시 궤도전차화 공사는 그동안 자재부족 등으로 건설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완공단계에 있음.

○ 도로수송 부문에서는

- 새로운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의 정비에 주력하였는데
- 주요 성과로는 평양시 9·9절거리(임흥로타리-신미동) 준공(9.10), 함경북도 염분진-칠보산 도로 건설(11.10), 개성시 도로정비 사업(중앙방송, 11.10) 및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착공(11.18) 등이 있음.

○ 특히 이번에 착공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는

- 기존 국도의 확장 및 직선화 계획에 따라 「만경대 갈립길-천리마구역-청산리-용강군-남포시입구」에 이르는 구간에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 완공시 도로 총길이 46.3km, 차도폭 48m의 12차선 도로가 될 것임.
- * 기존 평양-남포 고속도로(평양-강선-대안-남포)는 총길이 55km, 차도폭 15m의 4차선 도로

○ 대외적으로는

- 러시아와 철도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운수상설분과회의' 제2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7.7) 되었으며
- 파키스탄과의 '해상운수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7.20) 및 시리아와 '공민들의 호상여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8.18)하였음.

○ 한편 통신 부문을 살펴보면

- 북한은 '98년도중 50개 시·군에 광섬유 통신망을 보강·신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9월말까지 36개 시·군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도하였음. (평양방송, 9.28)

○ 북한은 '90년대 들어와 체신수단의 현대화 작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이래

- 통신선로의 케이블화, 통신망 중계소의 증설,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기기로의 교체 등 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 북한은 '97년말까지 70여개의 시·군과 단위에 진화자동화를 실현했다고 주장 (중앙방송, '98.1.13)

○ 북한이 추진중인 통신망 현대화 사업은

- 평양과 주요 군소재지들을 연결하는 행정통신망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교환설비 등 연결장치의 도입이 수반되지 않아 본격적인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 정보통제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까지의 확대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마. 과학기술 부문

- 북한은 9.4 중·평방 및 중앙TV방송을 통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였음.
 - 이는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능력 보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수준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
- 북한은 김정일이 '85. 8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제하의 논문을 통해 원료·연료문제의 자체 해결 방안 강구 및 설비 현대화를 강조한 이래
 -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91.7~‘94.6) 및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

※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 진망목표

- 2000년까지 수학 등 기초과학발전 토대 구축
- 컴퓨터·원자력 이용 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도모
- 금속·전자·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부문의 과학기술 발전
- 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
- UNDP 등 유엔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증대 및 지원기금 확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 연구단지 조성 및 공장·기업소 등 현장 연구소의 현대화 등 연구 환경 개선

- 한편 북한은 정권창건 50주년을 전후하여 신기술 개발성과를 선전하고 각종 전시회 및 발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음.
-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과학원 산하의 연구소들에서 몇가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 수리공학연구소가 새로운 저녁차 수력터빈(평양방송, 7.26)을, 수학연구소에서는 '조선장기'프로그램(노동신문, 8.8)을 개발하였으며
 - 연료연구소는 그을음을 연료로 하는 주물용 '소성알탄'(노동신문 9.13)을,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농기계(중앙방송, 9.22)를 개발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정권창건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각종 전시회 및 발표·토론회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 '육운부문 과학기술발표회'(8월 중순),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9.4), '전자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9.16~17), '전국의학과학토론회'(9.29~30)에 이어
 -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10.26~11.2)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경연에 32건, 전시회에 305건 등 총 337건의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음.
 - *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는 제3차 7개년계획기간('87년~'93년)중 산업의 전산화 추진정책에 따라 '90년 12월 이래 매년 12월에 개최해 온 북한내 유일한 컴퓨터관련 행사로서,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행사의 주요내용

< 프로그램 경영의 출품 건수 >

개최연도	'90년(1차)	'93년(4차)	'94년(5차)	'95년(6차)	'96년(7차)	'98년(9차)
출품건수	440건	265건	315건	200건	150건	337건

- 북한의 컴퓨터산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인 경영업무 프로그램,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문서편집용 워드프로세서, 건축설계 프로그램 등에 집중되어 있고
-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32비트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는 정도의 낮은 기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컴퓨터 보급율도 저조하여 첨단 정보산업의 기본 수단인 컴퓨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대외경제동향

가. 대외무역

- '98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가별 무역동향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 대중국 무역은 정제유류 등 광물성 연료의 수출이 격감하고, 수입부문에서 곡물과 비료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비 40.9% 감소하였으며
 - 대일본 무역은 임가공용 섬유제품 등의 수입이 감소하고 종자와 임가공 의류의 수출도 급감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비 29.4%의 감소를 기록했고
 - 그밖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홍콩, 인도, 러시아 등과의 교역 규모도 전년동기비 40% 내외의 감소율을 보였음.
- 이에 따라 기간중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동기비 30% 이상 감소한 약 7억 달러 수준으로 잠정 추정됨.
 - 수출은 20% 이상 감소한 약 3억달러, 수입은 45% 이상 감소한 약 4억달러 정도

< '98년 하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액 잠정 추정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총 액	수 출	수 입
중 국	222.9	26.7	196.2
일 본	193.7	114.2	79.5
러 시 아	8.7	6.4	2.3
기 타 국	301.5*	178.2*	123.3*
합 계	726.8	325.5	401.3

* 기타국은 홍콩, 인도 등의 국가를 지칭한 것으로서 예년 동기간중의 무역추세 변동 및 무역구조를 감안하여 추정한 수치임.

[중국]

- '98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2억 2,291만 달러로서 전년동기비 38.3% 감소하였음.
-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66.1% 감소한 2,671만 달러
- 대중국 수입은 전년동기비 30.5% 감소한 1억 9,620만 달러
- 무역수지 적자폭은 교역금액 자체의 축소로 전년동기보다 적은 1억 6,948만 달러

< '98년 하반기 대중국 무역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 분	'98년 하반기	'97년 하반기	증 감 륜
총 액	222,910	361,065	△ 38.3
수 출	26,714	78,795	△ 66.1
수 입	196,196	282,270	△ 30.5
무역수지	△169,482	△203,475	-

- '98년 하반기중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주력상품들을 보면
- 원목·제재목을 비롯한 목재(961만달러), 철강(679만달러) 등 2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60.1%를 차지하였으며

- 그외 광물성 생산품(367만달러), 식물성 생산품(228만달러), 수산물(123만달러) 등이 있음.
- 전년동기에 비해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무기화학제품(665% 증가), 철강제품(533% 증가), 토석류(505% 증가), 약기(106% 증가), 가죽제품(35% 증가), 아연제품(8.9% 증가) 등이며
 - 수출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광물성 연료(98% 감소), 전기·전자기기(100% 감소), 기계류(94% 감소), 식물성 생산품(59% 감소), 수산물(61% 감소) 등임.
-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 석유·코크스 등 광물성 생산품(6,581만 달러), 곡물과 제분공업품을 포함한 식물성 생산품(4,578만 달러)으로, 에너지·식량관련 제품의 수입이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으며
 - 이외에 화학공업제품(1,506만 달러), 방직원료 및 섬유제품(1,244만 달러), 기계류와 전자·전기기기(1,044만 달러) 등의 수입비중이 높았음.
- 전년동기에 비해 수입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연초(298% 증가),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 연료(18.2% 증가), 수송기기(346% 증가), 철강(12.3% 증가) 등이고
 - 수입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비료(80.9% 감소), 곡물(54.6% 감소), 밀가루(61.2% 감소), 플라스틱(47.5% 감소), 전자·전기기기(42.8% 감소), 차량 및 부품(41.4% 감소) 등임.

○ 식량·에너지 관련 수입실적을 보면

- 기간중 식량수입은 총 23만 2,737톤(4,179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곡물과 제분제품은 56.7%가 감소한 4,022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 원유·코크스탄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은 중국측의 시혜성 공급량 증가로 전년동기비 18.2% 증가한 5,284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질소·인산·칼리 등 단성비료를 중심으로 비료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80.9%나 감소한 388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 기간중 대중국 교역의 특징은

- 전년동기에 비해 무역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특히 중유 등의 광물성 연료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의 감소폭이 컸으며
- 수입에서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비료와 식량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예상케 하고 있음.

○ 북한의 대중국교역 감소는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홍수 피해 등으로 중국의 대북지원성 물자공급이 감소한데다

-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인한 북한의 생산부진에 기인한다 하겠음.

< '98년 하반기 대중국 교역동향 >

(단위 : 천달러)

품 목	수 출		수 입	
	수출금액	전년동기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동기비 증감률(%)
동물성생산품	1,415	△61.4	2,095	△42.2
식물성생산품	2,281	△59.3	45,776	△54.0
동식물성 유지	-	-	6,437	△25.9
조제식료품,음료,담배등	71	△13.4	5,625	△31.9
광물성생산품	3,669	△89.6	65,806	△14.9
화학공업생산품	177	276.6	15,064	△52.1
플라스틱·고무제품	52	△83.4	9,107	△39.7
원피,가죽,모피제품	35	△40.7	83	△80.2
목재·목제품	9,631	△20.7	298	52.0
펄프·종이제품	19	△42.4	1,549	△14.1
방직용섬유제품	552	△70.1	12,443	△20.9
신발류,모자류등	-	-	441	△42.2
석재,시멘트,유리제품	1	△92.3	946	△5.0
귀석,귀금속	760	-	13	-
철강 및 일반금속제품	7,778	△18.8	9,727	14.5
기계·전기·전자제품	325	△96.7	10,441	△38.7
운송기기	7	-	8,063	△26.2
광학·의료·계측기기	99	106.3	1,205	71.9
무기,탄약등	-	-	1	△99.6
가구,완구 및 잡제품	1	△83.3	981	12.9
예술 및 관동품	5	△28.6	-	-
합 계	26,714	△66.1	196,196	△30.5

[일본]

○ '98년 하반기중 북·일간 수출입 총액은 1억 9,376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일본 수출은 전년동기비 36.1% 감소한 1억 1,425만 달러
- 대일본 수입은 전년동기비 19.6% 감소한 7,951만 달러

< '98년 하반기 대일본 교역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 분	'98년 하반기	'97년 하반기	증 감 륜
총 액	193,762	277,588	△30.2
수 출	114,248	178,671	△36.1
수 입	79,514	98,917	△19.6
무역수지	34,734	79,754	-

○ 기간중 북한의 대일본 수출에서 나타난 주요 품목은

- 의류(3,355만달러, 29.3%), 수산물(2,730만달러, 23.9%), 채소류(1,873만달러, 16.4%)가 전체 수출에서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밖에 전자·전기제품(701만달러, 6.1%), 광물성 연료(665만달러, 5.8%), 종자 및 파실(587만달러, 5.1%) 등이 있음.

-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건직물(45만달러, 222% 증가), 가죽제품(56만달러, 59.3% 증가) 등이며
 - 수출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종자 및 과일(76.3% 감소), 의류(35.7% 감소)를 비롯하여 채소류(19.7% 감소)와 수산물(11.6% 감소) 등이 있음.

- 대일본 수입에서 나타난 주요 품목은
 - 방직용 섬유제품(2,268만달러), 전기·전자·기계류(1,636만달러), 차량등 수송기기(1,627만달러), 광물성 생산품(877만달러)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79.5%)을 차지하였음.

- 수입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광물성 연료(19.9% 증가), 종이와 판지(102% 증가), 기타 섬유제품(467% 증가) 등이며
 - 수입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모와 인조필라멘트섬유를 중심으로한 방직용 섬유제품(35% 감소)과 차량(17.8% 감소), 전기·전자제품(7.5% 감소) 등임.

- 기간중에 나타난 북한의 대일본 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 의류의 수출 감소와 임가공용 섬유 및 기계류의 수입 감소가 무역흑자액 감소(57.5%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데
 - 이는 최대 교역품목인 섬유 임가공 관련 사업이 일본의 경기침체와 북한의 에너지 및 원자재난으로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98년 하반기 대일본 교역동향 >

(단위 : 천달러)

품 목	수 출		수 입	
	수출금액	전년동기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동기비 증감률(%)
동물성생산품	27,307	△11.9	226	6.6
식물성생산품	24,765	△49.1	197	△69.1
동식물성 유지	-	-	105	69.4
조제식료품,음료,담배등	407	△76.2	523	△9.4
광물성생산품	10,689	△20.9	8,766	19.2
화학공업생산품	44	△96.3	1,788	8.2
플라스틱·고무제품	-	-	2,431	△14.7
원피,가죽,모피제품	559	59.3	6	50.0
목재·목제품	254	△63.2	220	△58.6
펄프·종이제품	62	△66.5	1,209	67.9
방직용섬유제품	37,053	△34.9	22,678	△35.0
신발류,모자류등	4	-	210	138.6
석재,시멘트,유리제품	50	△41.9	731	16.0
귀석,귀금속	18	△37.9	3	50.0
철강 및 일반금속제품	5,419	△64.0	1,895	△26.3
기계·전기·전자제품	7,083	△10.7	16,359	△8.7
운송기기	-	-	16,267	△17.0
광학·의료·계측기기	384	△45.8	508	△67.6
가구,완구 및 잡제품	66	100.0	1,952	△30.9
예술 및 관동품	117	△42.9	-	-
기 타	195	△48.1	4,534	7.7
합 계	114,248	△36.1	79,514	△19.6

[기타 국가]

- 북한의 대홍콩 교역은 '98년 하반기중 4,680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비 74.7% 감소하였는데
 - 이는 북한의 대홍콩 수입이 예년 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임.

- 기간중 대홍콩 수출(2,890만달러)이 급감한 이유는
 - 전년 동기간중 수출에서 47%(8,690만달러)를 차지 했던 금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800만달러 이하)하였기 때문이나
 -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금 등 귀금속의 비중(23.0%)은 여전히 절대적인 상황임.

- '98년 하반기중 북한의 대영국 교역 총액은 555만파운드(920만달러 상당)로 수입은 493만파운드(817만달러 상당), 수출은 62만파운드(103만달러 상당)를 기록하였음.

나. 남북교역

- '98년도 하반기 남북한 교역실적(통관기준)은 2,772건, 1억 4,414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억 6,290만달러에 비해 약 11.0%가 감소하였음.

- 반입실적은 환율 상승, 내수경기 위축 등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전년동기보다 37.2% 감소한 6,027만달러를 기록
- 반출실적은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으로 전년동기보다 25.4% 증가한 8,386만달러를 기록

< '98년 하반기 남북교역실적(통관기준) >

(단위 : 천달러, %)

구 분	'97년 하반기	'98년 하반기	증 감 륜
교역총액	162,895	144,135	△11.0
반 입	96,011	60,272	△37.2
반 출	66,884	83,863	25.4
교역수지	△29,127	23,591	-

○ 남북교역 품목중에서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 반입에서는 42.0%(2,540만달러), 반출에서는 18.0%(1,532만달러), 전체규모에서는 28.0%(4,072만달러)를 차지함으로써
- 남북한 위탁가공 교역의 비중이 전년동기의 26.5%보다 약간 증가하였음.

○ '98년도 하반기중 남북교역의 반·출입 상품구조를 보면

- 반입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 위탁가공품목인 석유류의 비중이 3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철강금속제품(25.4%), 농림수산물(22.1%) 등의 순으로 이들 세 부분이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 '97년 동기에 비해 금괴 등 광산물(△96.2%), 나프타 등 화학공업 생산품(△86.7%), 아연피 등 철강금속제품(△34.6%)이 감소한 반면에
- 위탁가공제품인 칼라TV 등 전자 및 전기제품(50.5%), 농림수산물(4.1%), 기타제품(153.8%)은 증가하였음.

- 반출상품 구조에 있어서는

- 금강산 관광사업용 수송기계 등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29.1%), 석유류(17.9%), 병커C유 등 비금속광물제품(13.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97년 동기에 비해 금강산 관광사업용 장비·물자의 반출 증가로 인하여 철강금속제품(142.5%),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106.6%) 등의 품목이 증가하였으나
- 중유 등 비금속광물제품(△28.8%)과 위탁가공용 석유(△7.8%)의 반출은 감소함.

< '98년 상반기중 주요 반출입 품목 구성 >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 목	'97년 하반기(A)		'98년 하반기(B)		증감률 (B-A)/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반 입	농림수산물	12,771	13.3%	13,292	22.1%	4.1
	광 산 물	12,849	13.4%	483	0.8%	△96.2
	화학공업생산품	15,242	15.9%	2,022	3.4%	△86.7
	섬 유 류	28,493	29.7%	23,990	39.8%	△15.8
	철강금속제품	23,410	24.4%	15,309	25.4%	△34.6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878	0.9%	658	1.1%	△25.1
	전자 및 전기	1,445	1.5%	2,175	3.6%	50.5
	기 타 제 품	923	1.0%	2,343	3.9%	153.8
	소 계	96,011	100.0%	60,272	100.0%	△37.2
반 출	일 차 산 품	9,587	14.3%	9,917	11.8%	3.4
	화학공업제품	1,770	2.6%	1,957	2.3%	10.6
	플라스틱, 고무	2,147	3.2%	3,647	4.3%	69.9
	비금속광물제품	16,390	24.5%	11,665	13.9%	△28.8
	섬 유 류	16,244	24.3%	14,982	17.9%	△7.8
	생 활 용 품	2,490	3.7%	2,799	3.3%	12.4
	철강금속제품	3,696	5.5%	8,961	10.7%	142.5
	전자 및 전기	2,081	3.1%	3,946	4.7%	89.6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1,795	17.6%	24,372	29.1%	106.6
	잡 제 품	684	1.0%	1,617	1.9%	136.4
	소 계	66,884	100.0%	83,863	100.0%	25.4
합 계	162,895		144,135		△11.5	

다. 나진-선봉지대 개발

- 북한은 11.24 중앙통신을 통해 나진-선봉지대에서 건설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 '98년 기간중 청계·안화저수지, 나진-선봉시장, 이동통신 센터들, 비파 송진·변전소들 및 나진헬기장이 완공되었고
 - 진달래회사, 국제평화그룹, 우호진료소, 유치원들의 건설 사업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 국제운송회사, 나진국제클럽, 나진-원정관광도로, 비파관광도로, 비파5성호텔, 황금의 삼각무역회사, 나진시 인민병원과 70개의 회사들, 기반시설과 관광사무소들이 공사중에 있다고 보도하였음.

-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사와 조선체신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동북아시아전화체신회사'가 7.20 이동전화 5백회선을 설치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한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 점차적으로 통화가능 국가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나진선봉지대에는 현재 이동전화 외에도 유선전화 1만회선과 카드식 공중전화 80대가 설치되어 있어 평양이나 청진을 경유하는 북한내 장거리전화 서비스가 개시

- 에너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 '9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선봉군 지역에 15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 선봉청년발전소의 발전용량 확장을 위하여 발전기실 건설과 설비조립공사를 추진하였음. (중앙방송, 8.31)

- 북한은 지대의 관리·운영체제와 투자관련 지원업무를 개선한 목적으로
 - UNDP와 UNIDO의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아 '라진기업학교'(Rajin Business Institute)와 '라진기업정보센터'(Rajin Business Information Centre)를 설립하였음.
 - * '라진기업학교'(9.24 개교)는 관광·기업경영·통계·지역관리·복지·관세법령·조세·금융 등의 과목을 개설, 6개월·1년·2년과정으로 북한·중국·러시아·몽골 등지로 부터 연수생을 모집
 - * '라진기업정보센터'는 컴퓨터·도서자료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주로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대내외 사업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한편 9.24~26 북한은 나진·선봉시에서 '나진-선봉지대 투자상담회'를 개최하였음.
 - 11개국에서 77명의 외국인(일본 33명, 미국 14명, 중국 12명 등)이 참가하였으나 2건의 투자계약 체결, 4건의 투자합의서 서명에 그치는 등 외자유치 성과는 부진

- 2건의 투자계약은 네덜란드의 '와실라'(Wartslia)社가 북한과 합작으로 선봉시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중국의 훈춘국제무역·상업센터가 나진항에 화물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것
- 4건의 투자합의서에는 중계수송, 화강암 광산개발, 가구 생산, 관광 등의 사업내용이 포함
- 일본은 98.10 중순부터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北京)과 다롄(大連) 및 옌지(延吉)를 거쳐 북한의 나진-선봉지대까지 연결하는 5박6일짜리 관광상품을 개발·운영중에 있는데
 - 일본 경제관계자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이 관광상품은 특히 나진-선봉지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한편
 - 이 지대의 주 교역대상인 옌지 등을 시찰하면서 북한과의 교류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 관광 대상지역으로 나진항·해산물가공센터·릿지(RITZY) 홍콩호텔 건설부지·황금의 삼각주은행·비파관광호텔 등을 포함하여 비용은 29만 2,000엔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대외경제협력

-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지원이 이어지고,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 현대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음.

-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 중국정부는 4.13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식량 10만톤과 화학비료 2만톤을 7.6 전량 도착(7.9, 중앙방송)시킨데 이어, 8만톤의 원유를 무상제공하기로 결정(10.14)하였고
 - EU는 1차로 비료 3만톤(7월 중순)과 옥수수 3.7만톤(8.6)을 지원(3천 300만달러 규모)하고, 2차로 1,300만달러 상당의 추가 식량을 WFP를 통한 지원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7월) 하였으며
 - 미국은 식량 30만톤의 추가 제공을 결정(9.21)함으로써 9월 말까지의 지원계획분 20만톤과 합하여 50만톤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하게 되었음.
 - * 북한은 WFP을 통해서 지원된 식량 3만여톤이 남포항(8.20)과 청진항(8.21) 도착하였으며, 파키스탄의 지원식량 1만 4,000톤도 남포항에 도착(9.22)하였다고 보도함.
 - * 유엔 인도조정국은 '98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실적이 3억 3,224만불(식량 90.7만톤 포함; 유엔 어필을 통한 지원 59.2만톤, 양자차원 지원 26.2만톤, NGO 모금을 통한 지원 5.3만톤)이라고 집계
- 한편 UN 인도문제조정국(OCHA)은 12.16 제네바에서 총 2억 7,475만달러 규모의 제5차 대북 합동원조계획(기간: '99.1~12.31)을 발표하였는데
 -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 및 농업분야 긴급복구 지원금 2억 4,327만달러(88%)와 의료·보건분야 지원금 2,839만달러(10%)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추진기구별로는 WFP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 2,429만 달러(20만 8,815톤)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 UNDP가 관계 시설·농지복구 등에 7,422만달러를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됨.
- 하반기중 유엔 산하기구의 북한 현대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됐는데
 - 그동안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하에 추진되어온 에너지 용해 합리화대상(8.25), 안주지구채굴공학연구소 강화대상(8.27), 대외경제연구소 협조대상(9.2)이 완공·조업에 들어갔으며
 - * UNDP 총재 일행 북한 방문(10.24-26)
 - 세계식량기구(WFP)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영양식료품 가공설비를 기증(11.13)하였고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과 1999~2000년 협조 이행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서'를 조인(12.18)하였음.
- 이외에도 북한은 대외 경제관계 강화 및 협력 확대를 위하여
 -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 및 식량지원 등을 촉구하였으며
 - 일본과는 비정부 단체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식량지원 요청 및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 중국으로부터는 식량, 비료 및 원유 등을 지원 받은 외에도 중국정부 과학기술대표단의 방문(8.28), '북·중 수력발전 이사회'의 합의사항 결정서 조인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고
- 러시아와는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상설분과 제2차회의 의정서를 조인(7.8)하고, '어업공동위원회' 제12차 어업공동위원회 합의를 조인하였음.
- 또한 유고,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과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파키스탄과는 '해상운수 상호협조 협정'을 체결하고, 시리아와는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으며
- 태국내의 광산개발과 누에산업 참여를 위해 합작으로 Korea Thai Mining Co. Ltd.와 Thai Korea Agritech Trading Joint Venture Co. Ltd. 설립을 합의(8.28)하였음.

< '98년도 하반기 북한의 경제·무역협정 체결현황 >

시 기	대 상 국	내 용
7. 8	러 시 아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상설분과 제2차회의 의정서 조인
7. 20	파키스탄	해상운수 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평양)
8. 18	시 리 아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조인
8. 26	유 고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
9. 28	중 국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제51차회의, 합의된 문제들에 대한 결정서 조인
10. 27	슬로바키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11. 24	러 시 아	제12차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서 조인
12. 14	스 위 스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12. 17	유 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1999~2000년 협조 이행을 위한 종합 운영계획서 조인

< 하반기중 주요 대외경제협력 동향 >

시 기	내 용
7. 6	○ 중국의 대북지원물자 진량 도착 - 4.13 무상 제공키로 한 식량 10만톤, 화학비료 2만톤
7. 8	○ 북-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상실분과 제2차회의 의정서 조인
7. 14	○ 몽골 친선 대표단 방문
7. 19	○ 정부대표단(단장 기계공업부장 광범기) 나이지리아 방문후 귀국
7. 20	○ 북-파키스탄, 해상운수 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평양)
8. 1	○ 독일 연방회의 의원(윈프레드 폰헤르)일행 방문(8.4 귀국)
8. 2	○ 영국 국회 하원 노동당 외교위 제1부위원장 일행 급수산 기념 공진 참관(8.8 귀국)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대표단 방문(8.8 귀국)
8. 6	○ 일본 자유당 소속 중의원 의원(아오끼 히로유키), 주체의 벗 일본 대표단, 일본 교직원 일-조 우호친선대표단, 일본 사이다마현 고다마군 일-조 우호연대추진연맹 대표단, 일-조 우호축진 야마가다현 의회의원 연맹대표단, 사이다마현 일-조 우호활동가 대표 단, 일-조친선 지바현의회 대표단 등 평양 도착 ○ EU(구라파동맹)이 제공하는 강냉이 3만7천톤 남포항 도착
8. 7	○ 북-이집트, 1998~2000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8. 8	○ 리비아 보건대표단 방문(8.15 귀국)
8. 10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8. 11	○ 일본 민주당 소속 중의원(곤도 효이찌)일행 방문(8.15 귀국)
8. 13	○ 외교부 대표단(단장 외교부 부부장 박길연) 시리아·에급·리비아 등 방문 위해 출국(9.4 귀국)
8. 18	○ 북-시리아,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조인
8. 20	○ 세계식량계획(WFP) 기증 식량 3만여톤, 남포·청진항에 도착 (8.20~21)

시 기	내 용
8. 25	○ UNDP 지원 에네르기 용해 합리화 대상 조업식
8. 26	○ 북-유고,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
8. 27	○ 보건부 대표단(단장 보건부 부부장 최창식), 세계보건기구 제16차 동남아시아지역 보건상회의 참가차 출국
8. 28	○ 중국 정부과학기술대표단 방문(9.4 귀국)
9. 1	○ 스위스 친선 및 연대성 대표단, 일본 히로시마현 공화국 식량 지원회의 대표단 방문
9. 2	○ UNDP 협조로 완공된 대외경제연구소의 협조대상 조업식 ○ 제12차 비동맹 국가수뇌자회의 개막(더반)
9. 12	○ 노동당 대표단(단장 당비서 김중린), 인도 공산당 제17차대회 참가차 출국
9. 15	○ 북한 대표단(단장 외무성부상 최수현), 유엔총회 제53차회의 참가차 출국(10.10 귀국)
9. 18	○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독일 벤츠회사 합동대표단 방문(9.21 귀국)
9. 19	○ 캐나다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대표단 및 팔레스타인 조선친선연대성 위원회 대표단 등 방문
9. 21	○ 중국 국가전력공사 부총사장(왕서성), '조-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1차회의 참가차 방문
9. 21	○ 미국의 대북 추가 식량지원계획(30만톤) 결정 사실 발표
9. 26	○ 태국 수상실 대표단(수상실 기술경제협조 총국 부총국장) 귀국 ○ 인도 공보 및 방송성 국무상 일행 방문 ○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대표단 방문(10.3 귀국)
9. 28	○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제51차회의, 합의된 문제들에 대한 결정서 조인
9. 30	○ 노동당 대표단(단장 당 부부장 지재룡), 러시아 항반 - 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 제31차대회 참가(10.31-11.1)
10. 2	○ 백남순 외무상, 국제농업개발기금 보조총재 일행과 담화

시 기	내 용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농업개발기금 보조총재 귀국 ○ 노동당 대표단(단장 당비서 최태복), 인도 공산당 맑스주의 제16차 대회 참가차 인도 향발(10.16 귀국) ○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단장 강영심위원장), 일본 향발(10.20 귀국)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조 우호협회 대표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이집트 노조 총연맹 대표단 등 방문(10.12 귀국)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계획 부집행국장(나망가 은공기)일행 방문(10.10 귀국) - 9일 백남순 외무상과 담화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맑스레닌주의 공산당 혁명가 대표단 방문 - 19일 노동당 대표단(김진양부장)과 담화, 23일 공동성명 발표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문화연락위 대표단(단장 위원장대리 문재철), 몽골과 중국 방문 위해 출국 - 29일 중국 정협 부주석 조남기 면담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생산자총연맹 대표단 방문(10.27 귀국) ○ 태국-조선인민친선단체 대표단 방문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부사무총장 김 유엔개발계획 행정관 일행 방문 - 26일 백남순 외무상과 담화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관문점 통과 방북(10.31 귀환) - 28일 김영남과 담화, 30일 김정일 면담 ○ 북-슬로바키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브라치슬라바)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유고, 1998~2000년도 문화교육협조 계획서 조인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성 대표단(최창식부상),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 수녀자회의 목표 달성에 관한 제4차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상급 협상회의 참가차 태국 향발 ○ 중국공산당 길립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위원회 대표단(왕유린 서기) 방문(11.10 귀국)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하원의원 토니 혼 방문(11.12 귀국) - 12일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면담

시 기	내 용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대표단(단장 무역상 강정모), 리비아·시리아 방문 위해 출국(12.1 귀국) ○ 몽골 정부대표단 방문(11.11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내각총리 홍성남 등과 면담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 대표단(박동춘부상), 몽골 향발(12.2 귀국)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계획 제공 영양식료품 가공설비 기증식(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한반도 평화회담 전담 특사 찰스 카트만 일행 방문(11.18 귀국) ○ 콜롬비아 국회대표단 방문(11.21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 20일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과 면담 ○ 러시아연방 수산위원회 대표단 방문(11.25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일 북-러 어업공동위원회 제12차 어업공동위원회 합의를 조인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노동당 대표 방문(11.30 귀국)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왕국 정부대표단 방문(11.30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양영섭과 면담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타지키스탄 친선협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에 대외문화연락부 부위원장 이성호를 선기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조선족 과학기술자협회 대표단(윤정주) 방문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 대표단 방문(12.12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외무상 백남순과 담화, 10일 김영남과 담화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스위스,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평양)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12.16 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일 김용순과 담화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유엔아동기금(UNICEF), 1999~2000년 협조 이행을 위한 종합 운영계획서 조인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쿠바, 1998~2000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쿠바)

3. 종합평가

○ 북한은 '98년도 경제시책 방향으로

- 동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로 규정,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상선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 대내적으로는 농업 및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①'먹는 문제'의 완전 해결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211고지"), ②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 건설, ③강·하천 정비, 도로 건설 등 국토관리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의 확대보다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획득에 역점을 두어 ①WFP 등 국제기구로부터 보다 많은 식량지원 획득, ②경제자원 외교활동 강화에 주력하였음.

○ '98년도 하반기 부문별 대내동향을 보면

- 건설부문은 정권창건 50주년을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다소 성과를 거두었으며
- 농업부문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수확량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 광·공업부문은 원자재 및 에너지난의 심화에 따라 생산침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였음.

○ '98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대외동향은

-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 일본, 홍콩 등 일부 국가 편중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가운데

- 아시아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임가공 관련 품목의 거래 역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 나진·선봉지대 개발도 서방기업의 외면으로 새로운 투자 유치가 부진하였음.

○ 이를 종합해 볼 때 '98년도 하반기중 북한경제는

- 북한당국이 근본적인 경제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식량사정은 전년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 자재난,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상황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98년도에도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90년이래 9년째 마이너스 성장

'98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일지

- 7.1
 - 광업부 이세대 부부장, 광부절 즈음 생산 성과 선진
 - 김정일, 명학탄광 등 혁명공업 수행 모범단위에 감사
- 7.3
 -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전신명령 제004호 하달(7.1)
 - “모내기 전투를 끝낸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에게 감사찰 줄 대 대하여”
 - 노동당 중앙위, 서창 수산물상점 종업원들에 감사
- 7.4
 -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상반기 계획 초과 수행
 - 김정일, 남포 유리연합회사 선동원 「김진수」 등에 감사
- 7.5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철 생산 성과 선진
 - 당·정 간부들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단위 참관(7.2-3)
 - 김영남,계응태, 한성룡, 양형섭, 최태복, 최영립, 홍석형, 김기남, 전문섭, 이하일, 김복신, 김윤희, 장철, 공진태, 윤기복 등
 - 자강도 당 책임비서 연혁묵 안내 소개
- 7.6
 - 각지에 태양상과 영생탑 건립 선진
 - 북한 전역의 모든 도시 군 리 소재지들과 주요 공장 기업소 들에는 영생탑들이 있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철강재 생산에서 혁신
 - 최근 한달동안에 진달보다 8천여톤의 강철과 압연강재를 더 생산했으며 선철생산을 1배반으로 늘였음.
 - 김정일 전신명령 관철위한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연환 모임 개최
- 7.7
 - 김정일, 사회안전부 및 순천화력발전소 일꾼들에게 감사
 - 공업생산액 증가 선진
 - 당 구호 발표이후 두달 남짓한 기간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175%, 제철·제강소의 강철생산 163%, 압연강재 생산 136%, 임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 126% 로 증가하는 등 1,800여개의 공장·기업소들이 올해 상반기 계획을 초과 수행.

- 7.7
 - 김정일, 보건부 일꾼들에게 감사
 - 인민군 「변인선」 소속부대 장병들 등, 영농전투 지원
 - 김일성의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7.6)
 - 중앙인민위 , 은성군 왕재산협동농장에 2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 (정령)
 - 인민군 군인들, 평양 시민들에 공급할 햇과일 수송
- 7.8
 - 김정일, 2월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들에 감사
 -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상실분과 제2차회의 의정서 조인(7.8,중방)
- 7.9
 - 중국의 대북지원물자, 7.6현재 전량 도착
 - 지난 4.13 무상 제공키로 결정한 식량 10만톤, 화학비료 2만톤 전량 도착
 - 총련 일꾼 대표단·총련 여맹일꾼·일본 나가노현민회의 대표단 등 원산 도착(7.8)
 - 농업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김정일 진신명령 관철위한 근로자들의 결의 모임
 - 쿠바 김일성농업전문학교, 김일성 초상화에 꽃바구니 진정 행사 개최(7.6)
- 7.10
 - 김정일, 농촌지원에 모범을 보인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 감사 전달
 - 강건종합군관학교, 한두현·유영준·강표영·최영복 소속부대 군인들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석탄증산 성과
 -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만2천여톤 더 생산
 - 위원발전소, 매일 110%이상 전력생산
 - 평남 순천시, 순천갑문발전소 건설 주력
 - 계획의 80% 이상 공정

- 7.11 • 김정일, 남포시 당 위원회 선진선동부 일꾼 등에 감사
- 7.12 • 김정일, 평양 승용차 사업소 등에 감사
 - 각 도와 시·군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일꾼들 등, 자강도내 여러 단위 참관
- 7.13 • 송원군 송관협농, 풀베기 전투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농장원 모임 진행(7.12)
 - 직총 중앙위, 남한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7.12)
 - 남조선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간섭을 견결히 반대하고 피뢰 당국의 외세의존과 외자유치책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함
- 7.14 • 김정일,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 첫 천리마호 뜨락또르 생산자 돌격대원들에 감사
 - 김정일, 무역은행 총재 김응철 사망(7.12)에 애도 표시. 한편 정무원 명의 부고 발표(7.13)
 - 위원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주력
 - 최근 한달동안에 계획보다 1,000여 m³의 통나무를 더 생산 하였음
- 7.16 • 김일성의 화진상집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7.15)
 - 김정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지질탐사학부 교원 김석태에 생일 70돌상
 - 평양 조명기구 종합공장, 남한 당국의 노동운동 탄압규탄 노동자들의 현장집회
 - 자강도 임업연합총국 산하 임산사업소 등, 뗏몰이에 역량 집중
 - 사리원 방직공장, 천 생산 실적 선전
 - 최근 한달동안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천 생산액 197% 방적사 생산 172% 직물사 생산 263%로 증산

- 7.17
 - 각지 근로자들, 2,47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 노동신문 논평, “칼자루를 권자의 억지공사” 보도
 - 근로자 파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비난
 - 평양제일여객자동차사업소 노동자들, 남한 노동운동 탄압규탄 현장 집회 진행
- 7.18
 - 김정일,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등에 감사
 - 평양시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에 3대 장군 현지교시·현지말씀판 건립
 -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농, 당국의 노동정책 규탄 현장집회 진행
- 7.19
 - 김정일, 영양역 차표판매중대 청년동맹 초급단체 동맹원등에 감사
- 7.20
 - 정부대표단(단장 기계공업부장 광범기), 나이지리아 방문 후 귀환(7.19)
- 7.22
 - 3월26일공장 일꾼들, 전선 생산 성과
 - 6.20현재 상반기계획을 102%, 6월계획을 116%초과달성
 - 노동신문 논평 “반북 대결분자들의 말치레” 보도
 - 대북 「정경분리」원칙 비난
- 7.23
 - 김정일, 북합미생물비료공장 건설에 참가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에 감사
- 7.24
 - 농근맹 중앙위 대변인, 당국의 농업정책 규탄 담화(7.23)
- 7.26
 - 평양시 청년건설사단 선교구역연대, 임흥로타리-신미동 주택건설 완공
 - 략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연간계획 완수
 - 매일의 작업과제를 1.5배 이상 수행하여 연간계획 완수
 -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저녁차 수력터빈 개발
 - 중소형발전소용 제작이 쉽고 효율이 높은 새로운 저녁차 수력터빈들을 개발(고속회유터빈과 관누식직류터빈)

- 7.28 •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세아지역국장 일행 평양 도착(7.27)
- 7.29 • 조총련 일꾼대표단 •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등, 원산 출발
- 7.31 • 성진제강기업소, 철강재 생산 증가
 - 고속도 압연법과 연속부딪치기압연법을 적용하여 매일 계획을 120-150% 초과 달성
- 조선혁명박물관 창립 50돌 기념 혁명사적부문 과학토론회 (7.30)
- 8.1 • 자강도 • 평북 • 평남 • 함남도, 최근 5개월간 670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발전능력 약 3만 2천 KW)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5호 • 6호 용광로 보수 완료
 - 평남도 청년들, 탄광진출 모임 진행
 -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케도진차 수리 주력
- 8.2 • 자강도내 중소형발전소들, 7월 전력생산 115% 달성
 - 평양신발공장 일꾼들, 7월 생산계획의 110-120% 달성
 - 용산수지일용품 생산협동조합, 수지일용품 생산 주력
- 8.3 • 양강도 광업연합기업소, 광물 생산 성과
 - 무진대 청년탄광, 매일 40여톤의 석탄 더 생산
 - 천리마 제강연합 기업소, 철강재 120% 생산 성과
 - 강계시, 북천 2호 청년발전소 조업식 진행(8.1)
 - 길이 110m, 높이 10.5m
 - 참가자 : 연형목(자강도 당 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 김종호(자강도 행정경제위원장)
 - 천내탄광, 석탄 매일 계획의 150% 이상 생산
- 8.5 • 4.25 여관 마감공사 진행(건축면적:13만5천㎡)
 - 용강기계수리공장, 15종 200여종의 기계 부속품과 부문품 등 생산
 - 평양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 성과
 - 금년 상반기 계획의 110%, 7월계획의 103%

- 8.5 • 자강도, 김일성 헌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8.4, 강계시)
 - 기념보고 : 연형묵(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 인민위원장)
- 8.6 • 양강도, 금년중 103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2만여kW/h의 전력생산 능력 조성
- 8.7 •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복합미량원소비료 생산 선진
- 8.8 • EU(구라파동맹)이 제공하는 강냉이 3만7천톤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8.6,중방)
 - 천내 입산사업소, 최근 한달동안에 통나무 생산계획의 129.5%, 동발나무 생산계획의 142.8%를 초과 생산
- 8.9 • 양강도내 공장 기업소들, 164개소에 근 40정보의 양어장을 건설
 - 자강도내 여러 기업소들, 김일성 헌지지도 40돌 기념 보고회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1·5·6호 터빈발전기의 가동을 높여 전달 같은 기간보다 시간당 26,000여kW의 전력을 더 생산
- 8.10 • 함흥 정제소금공장 착공식(8.9)
 - 청진화력발전소, 최근 10여일 동안에 매일 평균 1만5천Kw/h 더 생산
 -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 3대혁명붉은기 무리동직장,연간 계획 완료
 - 8월2일 현재 연간계획을 132% 초과 수행
 - 임흥로다리-신미동사이 도로 건설에서 용문다리 상판 부재조립 공사 완료
- 8.11 • 자강도, 전력생산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 선전
 - 성간군에서는 전력이 남아 다른 고장에 보내주고 있음.
 - 도내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인민학교 학생들에게 염소젖과 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남새밭과 경사지 강냉이밭들에서 거름을 많이 내서 올해 자강도의 강냉이 작황도 어느해 보다 좋음.

- 8.12 • 남포시 친리마구역, 풍력발전소 생산 성과
 - 올해 상반기에 40대분의 자석을 생산, 구역내 30여개 단위에 나누어 주어 풍력발전기를 만들게 했음.
- 김영남외교부장,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 신입대표(데이비드 모턴)와 담화
- 8.13 • 김정일,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연구원 등에 감사
- 8.14 • 김정일, 유명덕 소속 탄광 일꾼들에 감사
 - 김정일, 4.25여관 군인 건설자들을 원호하는 데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감사
 - 재중 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 ·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대표단 · 범청학련 재중본부 대표단 · 재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 · 재중조선인 경제인연합회 대표단 · 중국 연변북아세아과학기술 무역공사 대표단 등, 평양도착(8.13)
- 8.16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난달에 비해 시간당 5만kW의 전력을 더 생산
- 8.18 • 평북도 내 공장 · 기업소들, 최근 24종 8천여개의 트랙터부속품을 생산하여 수백여대의 트랙터를 되살려냈음.
- 8.19 • 의과학연구원 어린이 영양관리소, 어린이 영양식료품 생산 성과
 -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전달 동기에 비해 매일 1.2배의 전력 생산
- 8.20 • 김정일, 홍수피해 관련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에 위문전문(8.19)
 - 철도부, 해주-웅진 · 신강령-부포 철길공사 마감단계 보도
 - 거의 모든 구간에 침목을 깔고 레우를 놓았음.
 - 60여개의 다리를 놓고 70여개 구조물 공사를 진행, 정권 창건 50돌(9.9)까지 완공할 수 있게 되었음.

- 8.21
 - 정무원 총리대리 홍성남, 중국 국무원 총리 주용기에 홍수피해 관련 위문 전문
 - 정권 창건 50돌 경축 전국 농근맹 경제선동 경연 진행 (8.11-20,평양)
- 8.23
 - 해주-용진, 신강령-부포 사이의 철도 공사를 끝내고 열차 시운전
 - 세계식량계획 기증 식량 3만여톤 남포·청진항에 도착(8.20~21)
- 8.25
 - 개성시 폭우로 농경지 피해 발생 보도
 - 신의주판유리공장, 판유리 생산 실적 선진
- 8.26
 - 8.20 현재 총 3,27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완공
 - UNDP 지원 에네르기 용해 합리화 대상 조업식(8.25)
- 8.28
 - 안주지구 채굴공학연구소 강화대상 조업식(8.27)
 - 용성기계연합총국 합흥공작기계공장, 연간계획 초과 수행
 -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 「 청년절」 기념
- 8.29
 - 정권 창건 50돌 기념 인민정권부문 일꾼들·철도운수 부문 등, 연구토론회(8.28)
 - 인민군 청년일꾼 열성자회의 (8.28,삼지연 대기념비앞)
 - 함경남북도·강원도 등, 폭우피해 복구사업 전개 보도
 - 평양시 중구역 식료품종합상점 등, 김일성 현지도 30돌 기념 보고회(8.28)
- 8.31
 - 당 중앙위, 2월26일공장에 감사문 전달(연형목 전달)
 - 김일성의 양덕지구 진출 60돌 기념보고회 및 기념 과학 연구 토론회 진행(8.30,평남 양덕군 현지)
 - 8월2일세멘트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 9.2
 - 김정일, 북창지구탄광 인포탄광 등에 감사
 - 김정일의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8.31)
 - 장철 부총리, 중국정부 과학기술 대표단과 담화(9.1)

- 9.3
 - UNDP 협조로 완공된 대외경제연구소의 협조대상 조업식(9.2)
 - 전국 청소년학생들이 마련한 청년진위호 특대형 무케도진차 증정 모임
 - 10월13일청년제련소용광직장, 전기용광로 개건 확장 조업
 - 해주-용진-신강령-부포 사이 철길 개통식(9.3, 해주)
 - 평양 타조목장 조업식(9.3)
 - 제32화학공장 건설사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9.3)
 - 조선중앙통신사, 인공지구위성 발사 보도
 - 외교부 대변인, 인공지구위성 발사 관련 담화 발표

- 9.5
 - 김정일,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에 감사
 - 정권 창건 50돌 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진사회 개막
 - 평북제련소 등, 예술소조 공연(9.4,인민문화궁전)
 - 정권 창건 50돌 경축 노동자 무대(천리마제강연합기소)·농업 근로자들의 모임(청산협동농장) 진행(9.4)

- 9.6
 -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및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각계 인물들의 반향 연속 보도
 - 김정일, 중소형발전소 건설 모범단위 화평군 등 일꾼들에 감사
 - 라진화강석광산 완공 조업식(9.5)

- 9.7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경축 농근맹·여맹 일꾼 모임 진행

- 9.8 • 김정일, 인공지구위성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문 전달
 - 평양집적회로공장 조업
 -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대변인, 인공위성 발사 관련 일본의 반공화국 적대행위 규탄담화(9.7)

- 9.10 • 낙랑-서평양간 케도전차 노선 개통식((9.9)
 - 평양 9.9절거리 준공식(임흥로타리-신미동 사이 도로)

- 9.11 • 노동신문 논평,“탄보고 주먹질하는 시비꾼들” 보도
 - 「인공위성발사」관련 남한 반응 비난

- 9.13 • 함남도, 징권창건 50돌을 맞아 중소형발전소 100여개·대용연료발전기 100여기 조업
 -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일본 정객들의 「인공위성발사」 불인정 발언 비난 담화
 - 양덕군 동양발전소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

- 9.14 • 일-조문제 긴급 토론회 개최
 -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일정부의 대응 비판 모임(9.5,도쿄)

- 9.15 • 인공위성 발사 공헌자들에 김정일 감사문 전달 모임(9.14, 인민문화궁전)
 - 평양시내 60여개의 공장·기업소들, 올해 인민경제계획 완료
 - 사동구역 상업관리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상업절 기념
 - 발사된 인공위성(광명성 1호)이 9.13. 지구를 100바퀴 돌았다고 보도

- 9.16 • 외무성 대변인, 「인공위성발사」관련 일본의 경거망동 규탄 성명
 - 인민경제대학, 김일성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9.15)

- 9.17 • 김정일, 북창제약공장 등에 감사

- 9.18 • 함남도내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따라 140개의 수력발전소와 121개의 대형연료발전기를 완공, 9,800여Kw의 발전능력 조성
- 9.19 • 평남도 개천시 인민병원 개원
 - 7층의 기본건물, 연건평 12,000m², 외과 내과 등 30여개의 전문 치료과, 500개의 침대와 현대적인 치료설비를 갖춘 병원 건설
- 노동신문 논평, “개변은 통하지 않는다” 보도
 - 미국의 영변부근 지하 핵시설 의혹 제기에 대한 비난
- 9.20 • 김정일, 김책공대 재료공학부 등에 감사
 • 현대 지원 소에 불순물 투입 주장
 - 안기부와 통일부가 민간급 협력을 파괴하기 위해 소에 비닐띠와 삼바줄을 먹여 15마리 폐사, 8마리 폐사 직전 상태
- 9.21 • 중국 국가전력공사 부총사장(왕서성), 「조·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1차회의 참가차 방북
 •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문규현 등 소위 ‘통일에국세력’ 구속비난 현장집회
- 9.22 • 노동당 중앙위, 무역선 두만강호 당원·선원에 100항차 무사고 운항 치하 감사문 전달(9.20)
 • 농근맹, 사상사업부문 일꾼회의(9.21)
 • 노동당 중앙위, 국가과학원 등 과학자 및 종업원들에 감사문 전달(9.21)
 • 밀입북 한총련 대표들, 김책공업종합대학 방문(9.21)
 • 각지 공장·기업소·협농의 노동자들, 문규현 구속 비난성명
 •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의 노동자(12명)들, 도로관리원 진출
- 9.24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타빈직장 일꾼 등, 「진기절」 행사
 • 미국의 대북 추가 식량지원계획(30만톤) 결정 사실 보도
 • 평양담배공장 노동자 등, 남한의 “통일에국인사 탄압” 규탄 집회
 • 철도성 병원 창립 50돌 기념보고회(9.23,철도성회관)
 • 평양시 사동구역 이현협농, “통일에국인사 탄압” 규탄 현장집회

- 9.25 • 김정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노력영웅 황순하에 생일 80돌상
- 9.26 • 김정일, 철길 건설을 도와준 황해남도 등에 감사
 - 주북 만영상 중국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의 벅가운 지원(9.25)
 - 함남도, 금년중 600톤의 버섯 생산
 - 노동신문 논평, “보북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보도
 - 「로켓발사체사건」관련 일본 오부치총리의 유엔연설 비난
- 9.27 • 김정일, 인민군 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한 평양시 신발도매소 등에 감사
 - 조선반핵평화위 대변인, 로켓발사체 사건 관련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 규탄 성명(9.26)
 - 김정일 배려에 의해 로켓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등을 위한 연회 마련(9.26,목란관)
- 9.28 • 영광유리공장, 매일 50여m³의 판유리 생산
 -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제51차회의, 합의된 문제들에 대한 결정서 조인
 - 36개 시·군에서 빛섬유 통신카벨화(광섬유 통신케이블) 공사 완료
- 9.29 • 전기석탄공업성 중소형발전소 지도국 책임지도원, 2,35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완공, 현재 2,200여개를 건설중이라고 언급
 - 4.25여관 준공식
- 9.30 • 국제농업개발기금 보조총재 이행 방북(9.29)
- 10.1 • 자강도 홍수 피해지역에 농촌문화주택 1,200세대 새로 건설
- 10.2 • 백남순 외무상, 국제농업개발기금 보조총재 이행과 담화
 - 북한주재 쿠바대사와 성원들, 화성협동농장 가을건이에 참가

- 10.3
 - 김정일, 양강도 대홍단군 현지지도(10.1)
 - 평양 어린이편직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10.2)
 - 국제농업개발기금 보조총재, 평양 출발
 - 두단오리공장, 김부자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10.2)
 - 만경대피복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10.2)
- 10.4
 -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일성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10.2)
 - 김종태 해주 제1사범대와 해주 제2사범대 창립 50돌 기념보고회(10.2)
- 10.5
 - 자강도, 중소형발전소 200여개 완공
- 10.7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일성·김정숙의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10.6)
 - 세계식량계획 부집행국장(나망가 은공기)일행, 평양도착(10.6)
- 10.8
 - 남포유리연합회사, 김정일 현지지도 사적비 건립
 - 조선 아·태평화위 대변인, 소 폐사원인 관련 현대측과 공동조사 시작 보도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이성호위원장 대리, 한적 정원식총재에 통지문 발송(10.7)
 - 현대 제공 소 폐사 책임자 처벌 요구
- 10.9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위대한 3대장군 현지교시판·현지말씀판 제막
 - 황남도, 중소형발전소 100개 완성 보도
 - 대홍 은정목재가공공장 조업 시작(10.8)
- 10.10
 - 김정일, 청천강다리 개건 확장공사 위훈 건설자들에 감사
 - 백남순 외무상, 세계식량계획 부집행국장 일행과 담화(10.9)
 - 평양종합방직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10.9)
 - 세계식량계획 부집행국장 일행 평양출발
 - 만경대 애국발효퇴비공장 조업 시작(10.8)

- 10.11 • 대흥단군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쉼기모임
- 10.12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10만여m의 운탄선을 철도화하고 1,500여대의 탄차를 재생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 10월5일 자동화종합공장 노동자들, 일본의 반북정책 규탄 집회(10.11)
 - 황해남도, 10,000kw 조수력발전소 건설 추진중
 - 금년중 중소형발전소 4,090여개 완공 보도
- 10.13 • 인산군종합농장, 샘플로 10Kw 능력의 발전소 건설
 - 황해남도, 중소형발전소 100개 완성
 - 용성기계연합총국, 김일성의 현지지도 20돐 기념보고회(10.12)
- 10.14 • 함흥신발공장, 매달 400여m의 천을 절약하면서도 1천여켤레의 신발을 더 생산
 - 함경남도, 금야소금발 제2단계 공사 추진
- 10.15 • 김정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함남도 위생방역소 등에 감사
 - 김정일 현지말씀(대흥단군 현지지도) 관철위한 양강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혜산시)
 - 주북 폴란드 대사 등, 조선-폴스카 친선 장수원협동농장 농사 지원
- 10.16 • 12월5일청년광산, 9월말까지 침수된 갯에서 135,000m³의 물을 퍼냈으며 권양기실 · 압축기장 · 지상건물과 시설물 조립공사를 완수
- 10.17 • 김일성의 평양필름공장 현지지도 30돐 기념보고회(10.15)
- 10.18 • 김정일, 사회안전성 인쇄소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감사
 - 노동당, 대외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한 무역집배 무두봉호 당원들과 선원들에 감사문 전달(10.16)
- 10.19 • 김정일, 계웅상 사리원농대 잠학연구소 소장 조필호에 70돐 생일상
 - 사리원 닭공장 창립 30돐 기념보고회(10.18)

- 10.20 • 함경남도, 현재까지 총 261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 10.21 • 김정일, 희천공장기계종합공장·청년진기연합기업소·2월26일공장·2중3대 혁명붉은기 희천여관 등 현지지도
 - 동흥산직물공장 창립 40돌 기념보보회(10.20)
 - 주북 몽골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조선-몽골 친선 정방협동 가을걷이 지원(10.20)
- 10.22 •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평양객화차대 노동자들의 현장집회
 - 주북 러시아연방 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선-러시아 친선 고창협동 농장의 가을걷이 지원
- 10.23 • 김정일, 만포시 여러부문 사업 현지지도(10.22)
 - 김정일,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 모범을 보인 강계시 등에 감사
 - 함경북도, 1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 조선담배공업회사 노동자들, 한-미 합동군사연습 규탄 현장 집회
- 10.26 • 김정일, 인민군대를 원호한 평양시 고리약생산관리국 일꾼 등에 감사
 - 3월26일공장, 금년중 370여종 13,500여개의 규격제품 전선류등 생산
 - 제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개막
- 10.27 • 희천시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위한 쉼기모임(10.26)
- 10.28 • 김정일, 고산진 혁명사적관 및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일꾼 등에 감사
 - 함경남도 신포정제소금공장 완공·조업(10.26)
 - 평안남도, 지난 2년간에 109개의 수력을 비롯하여 총 421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
 - 평양 대성피복수출품공장·새날전기공장 종업원들,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현장집회
- 10.29 • 김영남, 정주영 회장 일행과 담화(10.28,만수대의사당)
- 10.30 • 함경남도, 200개의 중소형발전소 조업

- 10.31
 - 김정일, 징주영명예회장 일행 접견(10.30)
 - 김정일, 청진철도국 일꾼들 등에 감사
 - 김일성의 열두삼천 농장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10.30)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지도 사적비 제막식
 - 금속기계공업성 기계기술상사 창립 50돌 기념보고회(10.30)
- 11.3
 - 제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폐막(11.2)
- 11.4
 - 김정일, 서창청년탄광 5갱 박승재 굴진소대원 등에 감사
- 11.5
 - 자강도, 부남청년발전소 조업식(11.3)
- 11.6
 - 김정일, 희천여관에 선물
- 11.7
 - 김정일, 봉악식료종합공장 일꾼들 등에 감사
- 11.9
 - 평양맛내기공장, 김일성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 11.10
 - 경제대표단(강징모 무역상), 리비아·시리아 방문 위해 평양 출발
- 11.12
 - 계용상 사리원농업대학·이계순 사리원 제1사범대학·김종태 해주 제1사범대학 등, 김일성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11.10)
 - 원산농업대학, 창립50돌 기념보고회(11.11)
 - 평안남도, 10월말까지 421개의 중소형발전소 완공
- 11.13
 - 김정일, 평양 창광옷공장 등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 세계식량계획 제공 영양식료품 가공설비 기증식(평양어린이 식료품 공장)
 - 노동신문 논평,“한치의 양보도 바라지 말라”보도
 - 미측의 북한 지하핵의혹시설 사찰 요구 관련
- 11.15
 - 김정일, 함북도내 청년동맹 일꾼들 등에 감사
 - 당 중앙위, 100항차 수송을 성과적으로 마친 무역집배 장산호에 감사문 전달 모임(11.13)

- 11.16 • 김정일, 연안군 연안읍 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에 감사
- 11.17 • 김정일, 과학원 합흥분원 붕소과학연구소 등 일꾼들과 과학자들에 감사
- 11.18 •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건설 예정 보도
- 11.20 •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성과 보도
 - 1억100여만그루의 나무심기, 800여만Km의 강하천 제방 및 호안 공사, 약6,000Km의 도로 보수 정리, 1,300여만m²의 외장재 바르기 진행
- 11.21 • 청년동맹 청년돌격대 등, 평양·남포 사이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쉼기 모임 진행(11.20)
- 11.22 • 수풍임산사업소, 제재공장에서 나오는 부산품으로 30여가지의 가구 제품을 생산
- 11.24 • 김정일, 신의주수지일용품공장 등에 감사
 - 칭진버스공장, 170명을 태울 수 있는 궤도전차 제작
 - 개성시 장풍군 석천협동농장, 작업반마다 1개 이상의 소형발전소 건설
- 11.25 • 평안남도, 280여만그루의 나무 식재 185km의 도로보수 정비 40여개의 다리 보수 수백km에 달하는 강 하천을 정리 4,500m²의 돌쌓기와 수십정보의 호안림을 조성
- 11.26 • 순천화력발전소 제3호 발전기 시운진과 함께 가동
 - 직총 중앙위 대변인, 한국 경제의 IMF체제 1년 즈음 답화
 - “오늘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은 수습은 커녕 장기성을 띠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 11.27 • 금수산지구 수목원, 지난 보름동안에 70여종 12,000여그루의 산과일나무 식재
• 천리마 트랙토르 생산 40돌 기념보고회(11.26)
- 11.29 • 평북도 당위원회 · 인민위원회 · 수산관리국 등 200여개의 단위 기관들, 100여대의 탄차와 탄차바퀴 · 탄차베어링 · 안전등 · 용집봉 · 쇠밧줄 등 많은 설비 자재들과 물자들을 도안의 탄광들에 전달
•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 창립 20돌 기념보고회(11.28)
• 개성시와 배천군, 보름동안에 220만그루의 나무심기 · 110여km의 도로 보수 · 3개소의 가스 및 먼지잡이 장치 · 오수정화장을 정비하고 6정보의 양어장을 건설 및 보수하는 등 국토관리사업 진행
• 만경대구역 일꾼 · 근로자들, 연재와 발열량이 적은 초무연탄 버력탄 강냉이속 들을 높은 온도로 태울 수 있는 새로운 밀폐보온기술을 개발하여 타아소 · 유치원 · 학교들에 취사용으로 이용토록 공급
• 노동신문 논평.“속에 칼을 품고 하는 협력타령”보도
-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 상호공존 화해협력 발언 비난
- 11.30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함경북도 근로자들의 열기모임(11.29,청진)
- 12.1 • 로켓트발사(광명성 1호)에 공헌한 과학자 등에 국가표창 및 국가학위학직 수여(11.30,4.25문화회관)
• 개성시, 220만그루의 나무식재 · 228km의 도로 보수정비 · 12km의 하천제방 축조 · 375km의 중소하천 정리 등 국토관리 실적 보도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 철리탄광 차광수청년들격대 대원들에게 훈장 및 메달 수여
- 12.2 • 김정일, 강서구역 청산협동에 농업생산 설비 전달(12.1)
• 정부 경제대표단(강정모무역상), 리비아 · 시리아 방문후 귀환(12.1)
- 12.4 • 전국 공장 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 대장회의 개최(12.3,중앙노동자회관)
• 주북 세계식량계획 대표, 방북 유엔 부사무총장에 연회 마련(12.3)

- 12.5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지지 노동자 궐기모임(10월5일자동화 종합공장)
- 12.6 • 김정일, 자강도 입업관리국 등에 감사
• 승리-58형 자동차 생산 40돌 기념보고회
- 12.7 • 농업근로자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지지 찬동 궐기모임 (12.6,고산군 란정리)
- 12.8 • 3월26일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 철도성 종업원들,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지지 찬동 궐기모임(12.7)
- 12.10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지지 찬동 궐기 모임
- 12.11 • 각지 기업소 협동농장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지지 찬동 궐기모임
• 각 도와 철도성, 미국 규탄 청년학생들의 성토대회(12.7-10)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지지 찬동 종업원 궐기모임
- 12.12 •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에 의해 3억2백68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11,560여km의 도로와 3,760km의 강 하천, 근 3만정보의 토지를 정리 했음.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종업원과 연관 탄광 일꾼들, 김정일 말씀 관철 궐기모임(12.11)
- 12.13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지지 궐기모임
- 12.14 •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군인궐기모임(12.12)
• 평강군, 평강-이천군 사이 도로 확장공사

- 12.15 • 제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 등 대표들, 산케이신문사 항의 방문
 - 로켓발사체 관련 보도 불만 표시
-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 북한주재 유엔아동기금 신입대표(딜라와르 알리 칸) 평양 도착(12.14)

- 11.28 • 농업교류대표단(강연성),일본 비정부 수재지원 조직과 간담회(11.20)
- 노동신문 논평,“주제넘고 엽치없는 행위”보도
 -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관련 일본의 대북강경발언 비난

- 12.16 •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 평양 도착
- 함경북도·자강도 등,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지지 군중집회

- 12.17 • 김정일, 조난선을 구원한 무역집배 대홍 5호 선원들에게 선물
- 김용순-정주영회장 담화(12.16 만수대의사당)
- 백남순외무상, 주북 유엔아동기금 대표와 담화(12.16)
- 정주영회장 일행 판문점 통해 귀경

- 12.18 • 북-유엔아동기금(UNICEF), 1999-2000년 협조이행을 위한 종합운영 계획서 조인(12.17 평양)
- 강원도 원산시, 김정일의 12월1일말씀 관철을 위한 근로자들의 쫓기모임(12.17)

- 12.19 • 직총,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근로자들의 빅딜 반대 투쟁과 관련 담화(12.18)
- 조평통 대변인, 북한 반감수정 침투 사건관련 중통기자 답변
 - “이번 사건은 남조선 괴뢰들이 미제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북침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기위해 꾸며낸 조작극임”

- 12.20 • 김정일, 12.17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덕성기계공장 현지지도(12.17)
- 김정일, 함경남도 구강병예방원 등에 감사
- 평양산림설계사무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12.18)

- 12.21 • 남포항 정박 외국 선원들,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및 김정숙 생일 즈음 연구토론회(12.20)

- 12.22 • 농업근로자들,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7대 즈음 기념모임
- 12.24 • 농근맹 중앙위 대변인, 남한의 노동자와 농민 생존권 위협 관련
규탄 담화 발표(12.23)
• 청단군, 180여세대의 농촌 살림집 건설
- 12.25 •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종업원, 김정일 현지도 말씀 관철 쉼날모임
• 황해남도, 연백제염소 제방보수공사 주력
• 형제산구역 학산·형산협동에 백두산 3대 장군 현지교시 현지말씀판
건설
•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건설장, 군민 연환모임과 우등불 모임 진행
- 12.26 • 평안남도, 김정일의 12월17일 현지말씀 관철 쉼날모임(12.25)
• 용산청년발전소 준공(12.24)
•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주변 원림녹화 사업에 기여한 일꾼 등에 감사
• 평안북도, 529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착공하여 251개의 발전소 준공
• 새날전기공장 창립 30돌 기념보고회(12.25)
- 12.29 • 함경남도, 계단식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
• 과학원 농업과학연구원 창립 50돌 기념보고회(12.28)
• 과학원 산림과학분원 창립 50돌 기념보고회(12.28)
• 과학원 농업과학연구원, 김일성의 현지교시와 김정일·김정숙의
현지말씀판 건설
- 12.30 • 주북 경제 및 무역참사단, 새해 즈음 김정일에 축하편지
• 향산종합식료공장 창립 10돌기념보고회(12.29)
- 12.31 • 평양민족약기공장 창립 30돌 기념보고회(12.30)

